

# 바리데기 구약노정의 성격과 여성의 자기서사

이 주 미\*

1. 들어가는 말
2. 구약노정의 이접성
3. 여성 주체의 변이 양상
4. 여성적 자기서사의 형성과 전파
5. 나가는 말

---

\*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국문초록

신화는 사회통합 원리로서의 전통적 이념을 계승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이념을 실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수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지닌다. 바리데기 신화가 수많은 여성적 경험과 욕망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호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보수와 혁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이 신화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바리데기 신화의 구약노정은 연대기적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변적 세계이다. 이 노정은 정태적 공간으로 고정되지 않는, 일종의 경계면으로서의 상황이다. 이 노정의 첫번째 특징은 이점성으로서, 바리데기는 여기서 새로운 사물, 사건과 마주침으로써 새로운 성격과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 노정의 두번째 특징은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절대적 척도가 제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적 인식능력과 역량이 발휘되는 세계로서의 이 노정은, 관습적 명제로 사유될 수 없는 영성이 그 진실성을 보장받는 곳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 구약노정에서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효과는 여성의 육체에 각인된 지배 이데올로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구약노정은 약수물을 구함으로써 종료되는데, 구약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딸'이라는 부정적 기호만을 지녔던 바리데기는 '아내', '어머니', '여신'이라는 긍정적 자질을 새로이 부여받는다. 구약노정에서 주인공의 성격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은 바리데기 텍스트가 구현되는 동안 이본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것은 곧 여성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여성 예술외 대인관계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심어 : 바리데기 신화, 구약노정, 경계면, 정체성, 여신, 자기서사.

## 1. 들어가는 말

신화는 사회통합 원리로서의 보수성과 사회변화의 동력으로서의 혁신성을 동시에 지닌다. 신화에는 전승집단의 구체적 경험과 욕망이 삼투되어 있으나 그것은 보편적 언술로 위장되어 표현된다. 예컨대 바리데기 텍스트는 그 심층에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신념과 사유가 내장되어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호 이데올로기가 표방되고 있다. 신화의 질긴 생명력은 이처럼 혁신과 보수의 성격을 한 몸에 지니는 생존전략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황천 길목의 인로왕이자 샤먼들의 대모인 바리데기는 여성의 집단적 정체체식을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로 기능한다. 이는 바리데기의 태생과 성장의 조건이 여성적 삶의 질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 시간의 파기와 원형적 시간의 통합'<sup>1)</sup>이라는 신화의 형식 자체가 이미 여성적 언술 방식과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즉흥적 연회는 언어의 통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연회자는 텍스트를 구술하는 동안 비연속적이고 파편화된 기억과 욕망의 출몰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규범적인 재현체계가 해체되고, 주인공의 연대기적 사건에 대한 진술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의 질서와 총체성을 지향하는 삶에서 비롯된 연대기가 남성적 언술 방식이라면, 파편화된 일상이라는 삶의 조건에서 일회적이고, 파편화되고, 비연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언술 방식은 여성적이다.<sup>2)</sup> 더욱이 바리데기 신화는 여성

1) 엘리아데, 「현대의 신화」, 『문학과 신화』, 김병욱 외 역(예림, 1990), p.328.

2)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또하나의 문화』 제9호, 1992), pp.123~124에서 Jelinek, ed., 1980, 'Introduction', *Women's Autobiography : Essays in Criticism* 다시 참조.

주인공이 전면에 내세워져 있어 여성의 자기서사 양식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바리데기 신화의 이본은 현재 약 47편<sup>3)</sup>이 채록되어 있는데, 이 이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체로 줄거리를 주요 사건에 따라 분절하고 그 결과로서 바리데기의 영웅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sup>4)</sup> 다분히 남성적 언술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무가권에 대한 연구, 각 이본의 변이양상 등에 대한 고찰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것은 고증과 통계화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신화의 연행 및 전승이 가지는 심층적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텍스트의 서사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한 탐색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바리데기 신화의 구약노정을 중심으로 여성적 서사의 특징 및 그것의 생성과 유포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자료로는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을 대상으로 하게 될 터인데<sup>5)</sup>, 그 이유는 이 지역본이 다른 지역본에 비해 여성적 노동, 결혼, 출산 등에 대한 화소의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연행으로서의 대

3) 김진영·홍태한, 『바리공주전집 1, 2』(민속원, 1997).

4)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태곤의 「황천무가연구」(창우사, 1996)와 서대석의 「바리공주연구」(『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가 있다.

이에 반해 바리공주의 여성적 자질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로는, 강은해(「바리데기 형성의 신화 심리학적 두 원리」, 『계명어문학』 1집, 계명어문학회, 1984, 「한국신화와 여성주의 문학론」, 『한국학논집』 17집, 계명대학교, 1990), 이경하(「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97) 등이 있다.

5) 구체적으로는 고정체계를 보이는 필사본 「김동욱 소장 필사본」 「주옥선 소장 필사본」 「정신문화연구원 소장 필사본」과 비고정체계를 보이는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 중 「강릉 송명회본」 「속초 신석남본」 「속초 탁순동본」 「양양 지경숙본」 「영일 김순복본」 등을 주요 연구 텍스트로 한다. 『바리공주전집1』(pp.40~41 참조)에 따르면,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은 다른 지역본과 달리 해결해야 할 과업이 2가지 이상 나타나고 있으며, 바리공주가 약수탕을 다녀오는 여정이 어느 정도 묘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 2. 구약노정의 이접성

바리데기 신화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딸이 득병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서역으로 구약여행을 떠났다가 고행 끝에 약수를 얻어온다는 이야기이다.<sup>6)</sup> 이 텍스트에서 바리데기와 인연을 맺게 되는 주요 인물은 오구대왕 내외, 비력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 동수자(무장승)이다. 이들과의 인연을 따라 바리데기는 궁궐, 산중, 서천서역국으로 공간이동을 하게 되고 이야기는 바리데기의 동선을 따라 전개된다. 효행으로 봉합되는 이 이야기의 결미에서 ‘딸’이 지닌 부정적 자질은 긍정적 자질로 변화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명징한 주제의식과 전형적인 영웅신화 플롯이 강조될수록 바리데기 텍스트의 여성적 서사로서의 특징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신화의 주인공에 비해 볼 때 바리데기가 갖는 변별적 자질은 구약 체험을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리데기의 구약노정을 단순히 ‘공간이동’으로 보고 그 곳에 지뢰

6) 동해안 경상도 지역의 바리데기 신화 이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약노정의 화소는 다음과 같다(『바리공주전집 1』, p.45 참조)

- ①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
- ② 바리공주는 원조자를 만나 강을 건너거나 길 안내는 받는다.
- ③ 바리공주는 도중에 두 가지 이상의 과업을 해결한다.
- ④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난다.
- ⑤ 바리공주는 여자임을 감추려 하나 결국 여자임이 탄로난다.
- ⑥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 ⑦ 바리공주가 약수탕을 다녀온다.
- ⑧ 바리공주는 약수탕을 다녀오는 도중에 도움을 받는다.
- ⑨ 바리공주는 언니들의 방해를 물리친다.
- ⑩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처럼 배설되어 있는 문제들을 바리데기가 해결하는 것을 통과의례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이 신화를 남성적 영웅신화의 변이형이나 아류에 머물고 말게 할 것이다.<sup>7)</sup> 이 경우 구약노정은 바리데기의 신격화를 완성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러나 세속이라는 동일성의 공간논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구약노정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흐름이라는 독특한 시간논리 위에서 전개된다. 동일자의 원리가 지배하는 궁궐에서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난 바리데기는 ‘딸’이라 호명됨과 동시에 다양한 잠재성을 억압당한다. 그리고 ‘딸’이라는 부정적 자질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억압과 배제, 주변성의 극단적인 사건으로 바리데기는 산중에 유기되고 만다. 이 때 산속에서 인연을 맺게 되는 비력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단지 양육자일 따름이므로 바리데기의 자질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본에 따라 바리데기의 양육자가 인격적 주체로 한정되지 않고 동물<sup>8)</sup>이나 선녀나 산신, 수궁용왕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은 양육자의 역할이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어떤 이본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양육자가 공주를 키웠다’고 간단히 언급되기도 한다. 텍스트의 핵심은 바로 바리데기가 병든 오구대왕을 위해 구약여행을 떠난다는 데 있는데, 구약노정에서 바리데기가 맞이하는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화소들로 요약된다.

- a) 길 안내를 받다 : 약수를 구하러 가는 도중에 바리데기는 몇 가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빨래를 해주거나, 발을 갈아

7) 대표적으로 김열규(『바리데기』, 『비교문학』 1집, 한국비교문학회, 1977, p.41)는 바리데기 신화를 ‘남성적인 무속적 영웅형이 여성적으로 변모한 결과’로 본다.

8) 김혜 강분이본, 「안동 송희식본」, 「속초 신석남본」, 「고흥 오복례본」, 「부안 박소녀본」, 「고창 배성녀본」, 「해남 주평단본」 등 『바리공주전집 1』, p.24.

주거나, 마고할미 이 잡아주기이다.

- b) 지옥에 갇힌다. : 지옥을 지나가거나 갇혀있는 동안 바리데기는 죄인들을 구제한다.
- c) 동수자(무장승)를 만나 약수 얻는 대가를 지불한다. : 약수를 얻기 위해 바리데기가 동수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일정 기간 일을 해주고 아들들을 낳아주는 것이다.

서천서역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약노정은 정태적 공간으로의 정착을 지연시키는 일종의 경계지점의 상황이다. 이점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경계면<sup>9)</sup>에서 바리데기는 새로운 사물과 접촉하고 새롭게 배치되며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마주침으로써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는다. 무엇보다도 이 구약노정의 중요한 특징은 사물의 가치를 재단하는 절대적 척도가 제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일성에 기초한 세속적 공간 속에서는 합리성을 앞세운 다수적 척도나 초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자의 절대규범에 의해 사물의 가치가 분별된다. 바리데기가 버려진 이유 또한 단지 왕위 계승을 위해 아들을 얻고자 한 동일자의 기획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약노정 위에서는 절대적 중심이 제거되어 모든 사물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세속의 ‘딸’로서 천대받았던 바리데기도 여기서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다.

a)에서 바리데기가 길 안내를 받는 과정은 그 대가로서 치르게 되는 강도 높은 노동 수행과 나란히 전개된다.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에서 이 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아찝기, 베짜기, 풀뽑기, 방깨갈아 바늘만들기 등 여성적 삶의 체험에 기반한 노동으로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구약노정에서의 이 노동은 바리데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9) 불어로 milieu(界)는 ‘주위환경’ (‘물리·화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매질(媒質)’, ‘(시간·공간의) 중간’ 등의 의미를 결합시킨 말이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p.47 참조).

하는 천역도 아니고, 바리데기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바리데기의 구약 의지, 즉 효심을 시험하기 위한<sup>10)</sup> 관문들이다. 여기서 바리데기는 구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련을 감내한다. 그리고 바리데기의 역량을 넘어서는 과업은 지장 보살이나 관음보살, 두더쥐, 왕두꺼비, 청조새, 거북이, 백호 등 조력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통과한다.

바리데기가 구약노정에서 마주치는 상황들에는 이렇다 할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 상황들은 탈영토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이나 인과성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다양성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황이 좀더 형상적으로 처리된 대목이 b)인데, 여기서 바리데기는 지옥에 갇힌 죄인들을 구제함으로써 세속적 규범의 엄격성을 무화시킨다.

옥중에 들어가니 귀신이 왕마구리 꿩듯허드라  
 아기 공주 혀는 말이  
 너이들은 왜 이 곳에 들어왔노  
 저의들은 사람 죽어 사십구제 백일제 큰 머리 단장에 지노기세남 받지 못해  
 이 곳에와 가쳤느니요  
 여기를 나가면 부처님에 낙화가 있어야 나갑니다.  
 그때 공주아가가 낙화를 꺼내 들고 외로 짓고 바로 짓고 허니  
 철상이 깨지고 옥문이 부서지더라  
 그 삼품에 극낙 같 이 극낙 가고 시왕 같 이 시왕 가고  
 제각기 다 가드라<sup>11)</sup>

10) 이경하, 앞의 글, p.40 참조. 「영일 김석출본」 중 “바리데기 맘 떠불라고 서언 서역 부모한테 효성이 싸가 서천서역 고생이 되도 가나 안 가나 맘 떠불라고 그 할머니 내려왔구나”라는 대목에서 천태한 마고할매의 정체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리데기가 효심을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주옥선 소장 필사본」, 『바리공주전집 2』, p.533.



바리데기가 망자를 구제하거나 영혼을 천도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이본들은 바리데기의 무조신적 성격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이본들이다. 그런데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에서는 바리데기가 지옥을 지나면서도 망자를 천도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그러한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하나는 '왕생극락을 같이 가 주소서 하고 애걸복걸 슬피 우는 소리가 귀에 쟁쟁 눈에 삼삼 들리어 오네 그렇지만은 어찌 참 그 영혼들을 다 구출해 주리오. 갔다 올 길이 바쁘는데……'<sup>12)</sup>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시급함을 내세워 효행을 더욱 강조하는 경우에 그러하고, 다른 하나는 바리데기가 죄인의 단죄에 동의할 때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예로서 「속초 탁순동본」에 의하면, 지옥을 지나는 바리데기가 어느 죄인이 기름 가마에 첩을 넣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죄인의 죄상이 축첩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그저 '지금 가메에다 첩을 넣는구나'<sup>13)</sup> 하고 그의 죄를 수궁하고 지나치는 모습을 보인다. 축첩죄인뿐 아니라 패륜, 사리사욕, 사기 등의 죄를 지은 망자도 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볼 때 바리데기의 영혼 구제가 조건부임을 알 수 있다.

노동과 지옥체험 등 구약노정에서 바리데기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시련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리데기를 성장시키거나 성격적으로 완성시키는 데 관여하지는 않는다. 물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리데기는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영웅적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영웅적 행적 때문에 전체의 서사 구조 속에서 이 구약노정은 제의과정의 문지방<sup>14)</sup>과 같은 문학적 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구약노정은 신격화를

12) 「강릉 송명희본」, 『바리공주전집 2』, p.172.

13) 「속초 탁순동본」, 『바리공주전집 2』, p.227.

14) 빅터 터너, 이기우·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현대미학사, 1996), p.77.

예고하는 통과 의례로서의 과정이기보다는 여성적 인식능력과 여성으로서의 태생적 역량이 발휘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만물의 동일성이 깨어지고 현실적 가치가 전도되는가 하면 여성적 역량이 발휘되기도 하는 이 구약노정에서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효과는 여성의 육체에 각인된 지배 이데올로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바리데기는 딸이었으며, 가부장제의 대리인인 오구대왕 부인은 아이 낳는 도구였다. 속세에서 이들의 자리는 가부장적 논리에 따라 배치되었다. 그러나 구약의 여정에 나서게 되면서 그러한 배치는 자동으로 해체되고, 아비에 의해 딸, 아내, 어머니로 호명되었던 여성은 그 이름의 본래적 의미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육체가 대상에 일방적으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장소임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약은 곧 '경계면'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순간부터 바리데기는 다시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상징되는 공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아직 문턱을 넘지 않은 구약노정은 여전히 가변적 세계이며 바리데기는 자신이 접속하는 항에 따라 기존의 역할을 부단히 갱신하게 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발전도 성장도 아닌, 변화일 뿐이다. 들뢰즈 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되기'<sup>15)</sup>의 양상이다. 마주치는 사건들에 의해 긍정적 자질이 하나씩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이 구약노정은 태초의 혼돈 상태, 또는 생태적 유토피아와 닮아 있다.

15) 들뢰즈-가타리의 '되기'와 유사한 용어로 썩수스는 '테크네'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테크네'는 조화와 생성(출산) 혹은 그 무엇 되기를 지칭하는 여성적 용어이다. 로지 브라이도터, 「새로운 노마디즘을 위하여 : 페미니즘의 들뢰즈적 궤적 혹은 형이상학과 신진대사」, 『문화과학』 15호(1999. 가을) 참조.

### 3. 여성 주체의 변이 양상

피상적으로 볼 때 구약노정은 시련이나 박해의 서사를 완성하는 장식적 요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그 역동적 성격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구약노정은 바리데기가 약수를 구하면서 끝이 나고, ‘딸’이라는 부정적 기호로 시작된 바리데기의 정체성도 구약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아내’, ‘어머니’, ‘여신’의 역할로 다시 고정된다. 이미 예견된 대로 이러한 결말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우선 여성의 신격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성 중심의 또 다른 이분법에 함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친의 환생이 의미하는 가부장성의 회복은 여성적 모반의 욕망을 은폐시켜버린다는 점이 그것이다. 첫 번째의 한계는 이 텍스트가 신화의 형식으로 전승되는 것이므로 신화의 구성원리상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한계 역시 신화의 보편성과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전략이므로 달리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로지 브라이도티가 인식적 노마디즘이 ‘중개자’의 지대에 제대로 위치하고 안전하게 정착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옹호할 수 있다<sup>16)</sup>고 한 것은 그만큼 노마디즘이 현실적 기반 위에 놓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현실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메커니즘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현실로 돌아오는 기점인 구약 이후, 바리데기(딸)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로 고정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어떤 욕망이 은폐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본에서 바리데기가 아들 형제들을 낳은 뒤 약수 있는 곳을 비교적 쉽게 발견하고 약수를 손쉽게 얻고 있다.<sup>17)</sup> 이는 결혼과 출

16) 로지 브라이도티, 위의 글, p.180.

산이 구약의 최종 관문이었음을 말해준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존재 전이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우선 '결혼'에 대하여 살펴보면, 딸에서 아내로의 존재 전이에는 동수자(무장승)과의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약수 지키는 이는,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에서는 '동수자'로 언급되고 서울경기 지역본에서는 대개 무장승, 무방선관으로 나타난다.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에 따르면 약수 지키는 이는 하늘에서 죄를 지어 약수터 지킴이로 내려온 사람으로 아들 삼형제를 낳아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sup>17)</sup> 바리데기는 이 동수자(무장승)으로부터 약수를 얻기 위해 물 삼 년, 불 삼 년, 나무 삼 년의 노동을 수행하고 아들을 셋(또는 일곱이나 아홉)을 낳아준다. 이 때의 노동과 출산은 철저히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여성적 본성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바리데기 신화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성이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점은 효과적으로 역설하고 있으면서 여성이 생산의 주체임과 동시에 욕망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다만 바리데기와 동수자의 이별 장면을 삽입하고 있는 경상도 동해안 지역본에서는 동수자와의 결혼생활이 거래관계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래야 베리데기는 입아 입아 우리 입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소  
나를 버리고 기시는 님는 십리도 못가야 발병이 나네

17) 다만 「양양 지경숙본」, 「속초 탁순동본」, 「명주 신석남본」, 「동래 김정남본」, 「강릉 소영희본」 등에만 약수탕 문을 열고 한참 길을 가서 정성을 드려야 약수를 얻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안동 송희식본」에는 약수탕 위치를 알고 강을 건너가 목욕하는 선녀 옆에 숨어 있다가 선녀의 도움으로 약수를 얻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저순 소장본」에는 약수탕 가는 경치 묘사와 약수탕의 모양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바리공주전집 1』, p.33 참조)

18) 『바리공주전집 1』, p.32.

입아 입아 우리 입아 꽃과 같이 고운 입아  
 가지가지 뺨은 정을 열매같이 맺어놓고  
 수심같이 깊은 정을 뿌리 같이 묻어 놓고  
 나를 버리고 어데로 갔소 차라리 차라리 가실라거든  
 아들 삼형제나 데리고 가지지요 19)

이 대목은 지아비와 '아내'로서의 두 인물의 결합이 어느 한 일방에 대한 다른 쪽의 예속이 아니라 평등한 공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출산'과 관련하여, 딸에서 어머니로 존재가 전이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화에서 바리데기의 어머니와 어머니가 된 바리데기는 서로 대척점에 위치해 있는 듯하다.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거두어 보살핌으로써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사실상 가장 긴밀하게 연결해 있는 인물들이다. 바리데기도 가부장제의 희생양이지만, 오구대왕 부인 역시 비록 가부장체제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이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아를 생산하기 위해 일곱 번이나 산고를 치러야 했던 희생양이다.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바리데기가 구약여행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연민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최명덕본」에서는 “버리고 던진 생각하며는 아니 가련마는 어머니한테 복중에 십색을 고이 채워 주시어서 산하여 주신 은공으로 죽사와도 가겠노라”<sup>20)</sup>이라고 구술되고 있다. 구약노정에서 바리데기가 발견한 모성성-버려진 것들을 보살피고 죽은 원혼을 달래는-의 원천은 어머니에 대한 측은지심에 닿아있는 것이다.

신화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여인들의 모습은 약의 효험이 여성성

19) 「속초 탁순동본」, 『바리공주전집 2』, p.233.

20) 『바리공주전집 2』, p.234 「주공선 소장 필사본」에서도 바리데기는 “아버지 은혜 같으면 얹이 가겠지만 어머니 뱃속에 고이고이 잘 길러 낳아주시는 은혜로 제 안이 가오리까”(『바리공주전집 2』, p.533)라고 말하고 있다.

에서 비롯됨을 말해준다. 버려진 딸 바리데기, 오구대왕의 부인, 비력 공덕 할멈, 대모신으로서의 바리데기는 결국 한 여성의 다양한 '되기'의 양상이나 다름없다. 인접한 조건들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삶의 양태는 새로운 양태를 향한 문턱을 넘어서지 않는 한 고정된 역할로 규정된다. 들뢰즈가 기호작용이 아니라 이웃한 항들과의 관계에 의해 사물의 의미를 정의하려고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이라는 항의 일부로서 포섭되었을 때 성적 대상, 아이 낳는 기계, 기르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구약노정의 절정에서 바리데기가 아내로, 어머니로 존재의 형식을 바꾸는 것은 사랑과 모성을 체험함으로써만 약수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얻은 약수여야만 생명수로서 만물의 공존과 공생을 책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 여성적 자기서사의 형성과 전파

구약노정에서의 이접성과 존재의 변이 과정은 바리데기 텍스트가 구현되는 연희 현장에서의 즉흥성, 이본의 생성 방식과 유사한 양태를 지닌다. 그것은 또 고정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인 여성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유사하며, 대인 관계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여성의 언술 방식과도 유사하다.

언어는 필연적으로 발화자의 의도를 제한하거나 왜곡한다. 더욱이 세계는 언어적 명명에 의해 존재하며, 그 언어적 분절의 주체가 주로 남성인 이상 여성은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지 못한다. 여성이 아무리 특수하고 다양한 경험과 사색을 내면세계에 간직하고 있다 해도 스스로 그것을 남성적 명명법에 의해 재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이미지와 혼돈의 상태로 존재할 뿐이다. 동일자의

언어를 수용하는 순간 타자는 자기 고유의 언어를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인 사정에 비해 신화는 구술자의 내면의 소리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연회 의례의 특성상 샤먼들에 의해 구송되는 신화에는 그들의 영성, 영감에 의해 선택되는 말들이 허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언어 구사는 즉흥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에서만 이루어진다. 블랑쇼의 말을 차용하면, 말은 단지 '존재'할 뿐이며 시인(=연회자)은 '중개자'이고 말을 단호하게 극한까지 몰고 가 언어화 한 자, 신중하게 헤아림으로써 그것을 정복한 자이다.<sup>21)</sup> 신성한 장소에서 것처럼 치열하고 신중한 태도로 선택된 언어는 관습적이고 표준적인 코드, 통제된 언어로 표상되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펼쳐 보이게 되는 것이다. 샤먼의 언어가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런데 어떠한 대상을 표상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재현한다는 의미 외에도, 자신의 경험이나 관념을 기초로 대상을 해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영성에 몰입된 연회자의 구송은 내면세계와 외면세계의 치열한 교섭의 현장을 증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교섭의 산물이 새롭게 생성되는 이본이다.

연회자는 자신의 바리데기 텍스트를 구연할 때마다 단골들과의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 새로운 이본을 탄생시키게 되는 날줄과 씨줄을 날마다 새로이 엮어가게 되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데기가 구연될 때마다 타자(독자)를 통한 역 방향의 창작이 텍스트 내부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본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나는 여성적 텍스트의 수용, 독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노정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22)</sup>

21) 모르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책세상, 1990), pp.41~42.

22)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문학동네, 2002), p.14.

이본의 생성과정은 여성적 담론의 유포방식과 유사하다. 이본은 연희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상황과 연희자 고유의 경험, 관객이라는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된다. 다시 말하여 모든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지 않는 것이다. 연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그리하여 소외되거나 배척받는 이가 없도록 하는 이 관계적 언술은 여성적 언술의 특징을 대변한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사소하고 주변적인 소재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며, 되풀이되거나 모호하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특징은 구약노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여러 이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골격으로서의 플롯을 장식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구약노정은 형편에 따라 전체 서사의 진행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지연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관계성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성 주체의 추구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의 차이와 이견,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도달하는 것'<sup>23)</sup>임을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텍스트가 바리데기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여성적 담론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온 논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한 본질주의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상상계적 신화를 재구성하려 함으로써 현실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바리데기 텍스트는 여신에 관련된 가상의 이야기라는 점이 공공연하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적 본질을 강조하거나 비현실적 세계를 다루더라도 단지 시적허용으로 이해될 뿐 그 자체가 비판의 표적이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그 텍스트가 지금까지 살아 남았다는 것, 그리고 주인공의 신성이 훼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중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화라는 픽션은 그

23) 김성례, 앞의 글, p.126.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 5. 나가는 말

여성의 사사로운 일상사가 의미있는 사건으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흐름의 메타포이기도 하듯 바리데기 텍스트는 신화 양식의 특성인 집축성, 즉흥성을 기반으로 여성적 담론이 생성되고 유포되는 방식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화는 사회통합 원리로서의 지도 이념을 기념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이념을 실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수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지닌다. 바리데기 신화가 수많은 여성적 경험과 욕망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효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보수와 혁신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이 텍스트의 생존전략이다.

특별히 바리데기 텍스트의 구약노정은 논리적으로 구성되기 어려운 여성적 자기서사의 특징을 형상적으로 보여준다. 구약노정은 연대기적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변적 세계로서, 이 세계는 정태적 공간으로 고정되지 않는 일종의 경계지점의 상황이다. 이 경계면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접성이다. 이 노정 위에서 바리데기는 새로운 사물, 사건과 마주침으로서 새로운 성격과 역할을 얻게 된다. 그것은 바리데기가 이승과는 다른 배치와 계열화 속에서 여성의 본성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노정의 두 번째 특징은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절대적 척도가 제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곳의 모든 사물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 노정의 세 번째 특징은 여성적 인식능력과 여성으로서의 역량이 발휘되는 세계라는 점이다. 이 곳은 관습적

명제로 사유될 수 없는 영성이 그 진실성을 보장받는 곳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포괄하면서 이 구약노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효과는 여성의 육체에 각인된 지배 이데올로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약노정의 존재 변이 과정과 연회 현장에서의 이본의 생성 과정은 대인 관계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여성의 언술 방식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구약노정은 약수를 구하면서 끝이 나고, '딸'이라는 부정적 기호로 시작된 바리데기의 정체성은 구약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아내', '어머니', '여신'이라는 새로운 존재형식으로 고정된다. 딸이 본래적으로 부정적 자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엄밀할 의미에서 이러한 존재 형식의 변화는 성격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재영토회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진영·홍태한, 『바리공주전집 1』(민속원, 1997), p.690.  
 —————, 『바리공주전집 2』(민속원, 1997), p.581.

### 2. 단행본

- 김태곤, 『황천무가연구』(창우사, 1996), p.284.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문학동네, 2002), p.264.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문학과 지성사, 1990), p.374.  
 황도경, 『한국여성시학』(깊은샘, 1997), p.310.  
 모르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책세상, 1990), p.454.  
 빅터 터너, 이기우·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현대미술사, 1996), p.25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새물결, 2001), p.1000.

3. 논문

- 장은해, 「바리데기 형성의 신화 심리학적 두 원리」, 『계명어문학』 1집(계명어문학회, 1984), pp.53~73.
- , 「한국신화와 여성주의 문학론」, 『한국학논집』 17집(계명대학교, 1990), pp.115~140.
-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또 하나의 문화』 제9호, 1992), pp.115~137.
- 김열규, 「바리데기」, 『비교문학』 1집(한국비교문학회, 1977), pp.25~44.
- 김정경, 「『바리데기』의 텍스트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7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pp.368~397.
- 김혜순, 「탄생, 김선우분 바리데기」(서평), 『바리데기』(열림원, 2003), pp.192~202.
- 서대석, 「바리공주연구」, 『한국무가의 연구』(문학사상사, 1980), pp.199~254.
- 서지문, 「19세기 영국 여성 작가들의 자전적 소설」,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또 하나의 문화』 9호, 1992), pp.233~245.
- 오세정, 「무속신앙의 희생양과 희생제의」, 『한국고전연구』 7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pp.342~368.
-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 고찰」(서울대 석사, 1997), pp.1~132.
- 로지 브라이도터, 「새로운 노마디즘을 위하여 : 페미니즘의 들뢰즈적 궤적 혹은 형이상학과 신진대사」, 『문화과학』 15호(1999.가을), pp.149~190.
- 엘리아데, 「현대의 신화」, 『문학과 신화』, 김병욱 외 역(예림, 1990), pp.320~336.

## Abstract

## A Special Quality of 'The Journey to Obtain Medicinal Water' and Self-Narratives on Women through Baridegi Mythology

Lee, Joo-Mi

Baridegi mythology is a story about an abandoned daughter went on a trip, 'The journey to obtain medicinal water', to save her sick father to hell and finally came back home with medicinal water against the odds. The mythology is both conservative and innovative, which honors not only leading ideology as a principle of social integration but also experiment new ideology. Baridegi mythology has both faces, conservation and innovation, as it contains a variety of discussion on women while publishes ideology of filial piety outwardly. This is a survival strategy of a mythology.

'The journey to obtain medicinal water' of Baridegi mythology is variable and cannot be explained by a chronicle method. This journey is kind of a boundary('milieu') that can't be settled as it is static space. The first feature of this boundary is that it moves. Through the journey, Baridegi obtained new characters and roles by meeting new objects and events by chance. Also, it restored original status of a woman in a differently arranged and ordered situations that was not like this life. The second feature is that it has no absolute standards to measure the value of objects. Thus, every object has the equal value. The third feature is that this is the world that women can display her own ability of understanding. The truth which can't be considered as a customary proposition is guaranteed. The ultimate effects, 'The journey to

obtain medicinal water' pursues, is to eliminate the traces of leading ideology carved by women's body.

'The journey to obtain medicinal water' finishes as medicinal water obtained, and the identity of Baridegi overcame a negative image of a 'daughter', and received new qualities such as 'wife', 'mother' and 'goddess'. The characters in 'The journey to obtain medicinal water' journey are various and similar to making copies while a full text of Baridegi is recited. And, it is analogous to the development of a woman's flexible not static identity. Also, it is analogous to communicative skills of a woman. Man's depiction in the text of Baridegi is common in many copies, but the discussion on women is either omitted nor diffusely stated. Woman's experiences and desires are reflected right here.

The recent interests in woman's writing has a tendency to state a segmented life of a woman and describe destiny of a woman comparing to a mytholog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voices of a woman while the support for a woman shouldn't divide into two, the man and the woman.

**key words** : Baridegi mythology, The journey to obtain medicinal water, Boundary('milieu'), Identity, Goddess, Self-Narratives.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